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 93번 사우스 방향에 있는 표지판에 알(가)을 발음하지 않는 보스톤 엑센트를 이용해 방향등을 이용하세요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된 표지판은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방 정부의 입장이다. (사진 = AP)

교통 표지판에 유머는 이제 그만... 연방 정부,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내 고속도로에서 더 이상 유머러스하거나 재미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미연방고속도로국은 1천 100페이지에 달하

는 새로운 고속도로 표지판 규정 지침을 전달해 앞으로 2년 이내에 모든 고속도로 표지판을 수정하도록 했다.

연방고속도로당국은 특히 전자 표지판 중

불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거나, 팝 컬처 또는 우스꽝스런 내용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 같은 사인은 운전자들을 정신을 분산시키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2면으로 계속

피아니스트 임윤찬 보스톤 무대, 보스톤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연주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뿌리는 임윤찬이 보스톤심포니오케스트라(BSO)와 보스톤 첫 공연에 나선다.



임윤찬은 2월 15일에서 18일까지 유명한 러시아 지휘자 투간 소키에프의 협연으로 셰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콘체르토 No.3를 연주한다. 이 곡으로 임윤찬은 2022년 밴 클라이브 인터내셔널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에 등극했다.

그의 공연 동영상은 1천3백5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전까지 최고 조회수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1903~1989)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 이었다.

BSO 티켓은 BSO.ORG를 통해 구입가능하다.

THE PRO 수잔리 부동산
REALTY GROUP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확실한 예산, 전문적인 검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는 지난 13일, 벌링톤(Burlington)에 위치한 세븐 스프링즈 클럽하우스(Seven Springs Clubhouse)에서 동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신년모임 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는 지난 13일, 벌링톤(Burlington)에 위치한 세븐 스프링즈 클럽 하우스(Seven Springs Clubhouse)에서 동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 새해인

사와 덕담 나눔으로 시작한 이날의 동문 모임은 1부 순서로 환영사, 교가제창, 참석자 소개 및 모교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 열린 "작은 음악회 - 노래의 날개위에"에서는 양나래 동문이 소개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곡과 오페라 메리위도우(Merry Widow)중의 이중창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참석한 동문들의 열띤 앵코르 요청을 받았다.

이어 동문회 소모임 및 장학사업 소개, 2023년도 동문행사 회고 및 2024년 운영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모교 트리비아 경품 추첨을 마지막으로 모임을 마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교통 표지판에 유머는 이제 그만

▶▶1면에 이어서

있다는 것이다.

미 교통부 산하의 고속도로 당국은 전자 표지판의 내용은 “단순, 직접, 간결하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전방 추돌사고, 위험한 날씨, 교통정체 등의 경고와 안전벨트 착용 권고, 과속 금지 경고, 음주운전 금지 등만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 당국이 금지한 표지판 내용 중에는 매사추세츠의 경우 “Use Yah Blinkah(방향등을 사용하세요)”, 오하이오의 경우 “사둔집을 방문하나요? 천천히 운전해 늦게 도착하세요”, 펜실베이니아의 “Don’t drive Star Spangled Hammered(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아리조나의 “Hands on the wheel, not your meal(운전대를 잡으세요)” 등이 다.

아리조나는 고속도로에 약 300개 이상 고속도로 전자 표지판이 있다. 지난 7년동안 주 교통부는 유머와 창의성 있는 내용을 공모해 왔었다. 지난해에는 무려 3700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공화당원인 데이비드 쿡 아리조나 주 하원의원은 연방 정부 지침에 크게 반발했다. “왜 연방정부가 각 주별로 하는 교통 표지판에도 개입을 해야 하는가? 가장 핵심적인 예는 연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글로브 선정 첨단산업계 2023 영향력 있는 인물 50에 한인 2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글로브가 선정한 매사추세츠내 첨단 테크 산업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50명에 한국계가 2명 포함됐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MBA)에 한국인 최초의 종신(tenure) 교수 문영미 교수는 전체 17위에 선정됐으며 월덤 소재 디보티드헬스(Dedicated Health)의 에드 박 CEO는 31위에 선정됐다.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는 레스토랑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테크업체 토스트(TOAST)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프레딕, 아만 나랑, 조나단 그림 등 3인이 뽑혔다.

하버드경영대학원 역사상 첫 한국인 일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도 최초로 종신교수로 임명된 문영미 교수는 테크놀로지와 브랜딩 혁신 그리고 문화의 교차점에 집중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듀오링고에서 봄바스, 우버에 달하기 까지 등에 대한 200여 케이스의 비즈니스 연구 논문을 판매해왔다. 이들 논문들은 벤처와 테크 기업들이 현대 문화에 어떤 의미일



하버드 문영미 교수(왼쪽), 에드 박 디보티드헬스 대표

수 있는 지 조명하고 각각의 기업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한 내용들이다.

독창성이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묻는 “다름: 경쟁적 무리를 피하기” 등의 저서가 있으며 TED팟캐스트 애프터아워스의 공동 호스트를 맡고 있다.

1964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출생한 문 교수는 고교 재학시절 부모를 따라 귀국, 서울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예일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쳤다. 문 교수는 현재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MBA프로그램에서 소비자 마케팅 경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략적 마케팅 매니지먼트 등의 과목을 맡아 강의



하고 있다.

에드 박 대표는 미국 노인들에게 건강보험사와 병원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올인원 케어를 목표로 하는 회사 디보티드 헬스를 공동 설립했다. 디보티드 헬스는 메디케어 어드벤처 플랜을 운영하며 메디컬 분야를 통해 임상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독특한 테그놀로지를 사용케 어에 대한 비용과 진료부분에 대한 좀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2021년 12억달러의 자본금을 확충했다. 디보티드헬스 이전 박대표는 애틀나헬스에서 CTO와 COO를 담당했었다. 박 대표는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첫 디지털신문 뜨거운 반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새해부터 새롭게 시도한 보스톤코리아의 이메일 디지털 신문이 뜨거운 반응속에 출발했다.

보스톤코리아 디지털신문은 1월 14일 일요일 오전 이메일을 통해 첫 발송됐으며 총 4천5백56명이 열람해 전체 21,491 이메일 발송 중 21.20% 열람율을 기록했다. 첫 디지털 신문은 기술적인 문제로 약간 늦게 발송됐으나 각 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해당 디지털 신문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디지털 신문은 스마트폰에 볼 경우 쉽게 확대해 볼 수 있으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볼 경우 확대가 안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 개선 중에 있다.

보스톤코리아의 독자 레이먼드 김씨는 이메일로 “디지털 신문! 아주 편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발전하는 보스톤코리아 축하드립니다” 라고 격려했다.

장명술 대표는 “첫 디지털 신문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무사히 발간될 수 있었다.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불편한 점과 디자인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 독자들이 디지털 신문 관련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바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보스톤코리아는 새해부터 매 주 종이 신문과 디지털 문을 번갈아 발행하고 있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의사, 교수 등 엘리트...한인 성매매 조직 고객 명단 공개 될까

최고법원 이례적 신상공개 결정에, 변호사 및 판사연합 반발
매스 최고법원 한인 성매매조직 성매수범들 재판 돌연 연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의사, 교수 등 파워 엘리트들이 것으로 알려진 케임브리지 한인 성매매 조직 이용 고객들의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최고 법원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주 최고법원 단독 판사부는 17일 예정됐던 한인 성매매 업소 20여 성매수자들의 케임브리지 지법 재판을 돌연 연기했다.

케임브리지 소재 법원은 한인 성매매조직 이용 고객들이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하는 심리재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재판에서는 혐의자의 신상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에 보스톤글로브, WBUR, 그리고 NBC보스톤 등이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신상공개 청원을 최고법원에 제출했으며, 최고법원의 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신상공개를 결정했었다.

그러자 신상공개의 위기에 빠진 성매수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들은

신상 공개를 반대함과 동시에 관련된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지법의 소송재판 판사 및 보조 판사연합도 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협회는 혐의만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 절차에 편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들 성매수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후폭풍(collateral consequences)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연합은 이들에 대한 형사기소가 이뤄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안이 복잡해지자 최고법원의 프랭크 가시아노 부 판사는 16일 성매수자 대리 변호사들에게 주 대법원에 추가적인 답변을 22일까지 제출토록 판결했다. 또한 케임브리지 지법의 심리 재판은 최고 법원의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연기됐다.

이번 판결에서 13명의 피고인들을 대변하는 6명의 변호사들은 성매매 고객들도 일반 개인이며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지법 재판부의 심리 재판에서 소명할 기회없이 언론에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곤경과 수치

스러운 콜레터럴 콘시퀀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연방검찰청이 이들 피고인이 강력한 과위를 지닌 엘리트들이라고 표현한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존 도(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을 지칭) 중의 한 명은 정부에서 일하지 않으며, 다른 한명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다. 또 다른 한명은 정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과학자일 뿐이다. 이들 중 누구도 ‘권력을 지녔거나 엘리트’ 라고 표현될 만하지 않다” 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만약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이 이들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결정할 경우 이들은 성매매 요구 혐의로 인한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룹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관계자들은 이들 고위직 엘리트들이 형사법체계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건이 아시안 여성들 성매매 착취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다

“나는 이 성매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고위직으로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아는 커뮤니티 일원의 남성일 것으로 생각한다” 고 리사 골드블랜 그레이스 비영리단체



마이라이프마이초이스 대표는 주장했다.

“이들의 범한 성매매는 아주 나쁜 일이다. 나는 대법원 판사가 제대로 판결에 이들이 범죄혐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3일간의 재판은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지난 2020년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인의 한인 성매매 조직이 발각되어 연방 법원에 기소된 것에 이어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고객들의 심리 재판이었다.

연방검찰청은 이들 성매매 고객들은 엘리트 들이었으며 선출직 공무원, 의사들, 정부 계약 사업체들, 군 고위직들이라고만 밝혔다.

국토부의 성매매 조직 관련 특별

조사관은 2020년부터 수년간에 걸친 수사동안 약 20명의 성매매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 이야기를 나눈 개인들이 처벌 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현재 케임브리지 거주 여성 이모씨(41)씨는 이 성매매 조직의 리더로 여성들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데담 거주 남성 이모씨(30)와 캘리포니아 거주 남성 이모씨(68)도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인은 성매매 체계를 갖춰 여성들에게 매사추세츠에서 버지니아 등지를 여행하며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는 연방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구속적부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헬스 커넥터 건강보험 가입자 기록적으로 증가

공개등록 후 약 5만여명이 신규 등록해 27%증가
매스헬스 탈락자 중 23%만 커넥터 보험 등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월 23일 헬스케어커넥터 보험 공개 등록 접수 마감을 앞둔 가운데 주정부 보조 건강보험인 커넥터케어 (ConnectorCare)의 신규 등록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드리 모스 개스티어 커넥터 대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헬스케어 커넥터의 공개등록이 시작된 이래 약 5만여 주민들이 신규 등록해 약 27% 등록인원이 증가했다.

매스헬스 커넥터는 이같은 등록 인원의 증가가 커넥터케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년간의 시험프로그램으로 인해 확대된 등록자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커넥터는 지난해 실시된 매스헬스 자격심사에 따라 매스헬스 자격을 잃은 약 20만 3천 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보험가입 장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스 개스티어 대표는 “우리는 매스헬스 자격심사기간을 통해 탈락했으나 건강보험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커넥터 케어 제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약 7만5천명의 주민들이 커넥터 케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커넥터 측은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커넥터에 따르면 7만 5천명의 신규 등록자들은 지난 매스헬스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총인원의 23%에 불과하다.

마리사 위틀먼 마켓플레이스 정책 수석은 “매스헬스 자격심사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 중 약 3만여 명이 다른 건강보험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당 수의 사람들이 다른 건강보험을 이미 보유했지만 이를 우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

그러면서 “다만 커넥터케어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의 가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는 2006년 이래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저소득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넥터

공사를 설립하고 주정부 보조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커넥터에 따르면 올해 커넥터케어 등록자들은 272,300명이며 이는 지난 2018년 250,580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매스커넥터케어 자격을 올해부터 연방 빈곤선 300%에서 500%까지 확대한 이후 신규로 주정부 건강보험 보조에 해당하는 등록자는 4만 4천명에 달한다. 개

스티어 대표에 따르면 약 3만 7천명은 이미 커넥터 케어에 가입해 있었으나 보조를 받지 못했던 가입자들이며 7천명이 새롭게 커넥터케어 자격이 가능해진 주민들이다.

커넥터의 공개 등록기간 마감은 1월 23일이지만 주정부는 매스헬스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특별 공개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PPY NEW YEAR

2023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해내신
한인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한해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올 한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보스톤 **코리아**



매사추세츠 무료 프리스쿨 및 차일드케어 보조 확대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주정부는 내년 매사추세츠 예산에서 5억9천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차일드케어 보조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힐리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26개 게이트웨이(26 Gateway)시의 4살 아동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프리스쿨을 제공하는 데 3천8백70만달러를 배정하기로 했다. 26개 게이트웨이는 브락턴, 폴리버, 해버힐, 홀요크, 로렌스, 로웰, 린, 몰든, 뉴베드포드, 스프링필드, 셀럼, 웨스트필드 등이 포함된다.

또한 7천5백만달러를 차일드케어 보조금에 배정했다. 차일드케어 보조금은 주 중간소득의 85% 이하의 가정에 주어진다.

현재 차일드케어 보조금인 차일드페어보조프로그램(Child Fare Financial Assistance)은 주 중간소득 50%이하인 경우 지급됐다. 이는

3인 가족 기준 연 소득 \$61,106이하 소득 이하이다. 만약 주정부의 신규 보조가 시행되는 경우 3인가족 소득 \$103,880이하인 중간소득 가정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4억7천5백만달러는 팬데믹 시절의 보조 비용으로 제공됐던 커먼웰스 케어스 칠드런 그랜트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 그랜트는 지난 9월로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6월로 연장됐으며 이제는 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힐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케런 스펠카 주 상원의장은 “포괄적인 유아 교육 및 차일드케어법안” 의 통과를 계획중이다. 스펠카 의장은 “주지사와 가까이 협력해서 영구적이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론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아

직까지 차일드케어 법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주지사는 올해 정책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수요일 연초 국정연설(State of the Commonwealth address)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최근 차일드케어 제공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액을 학생당 5.5%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했다. 한편 힐리 주지사는 약 60개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축소를 발표했다. 예산 축소항목에는 시니어 아웃리치, 홈리스 쉼터, 암 연구 등이 포함됐다.

비록 매사추세츠 부모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비싼 유아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힐리 주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hsb@bostonkorea.com



그레이트보스톤 주택시장 매물 부족 현상 역대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트 보스톤 주택시장이 여전한 매물 부족으로 역대 최저급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레이트보스톤부동산중개업연합(GBAR)의 2023년 12월 집계 따르면 단독주택 매매 수는 지난 2022년 682채에 비해 24.6% 하락했으며 콘도미니엄의 경우도 19.5%하락했다.

거래수의 감소로 인한 집값의 오름세는 여전했다. 12월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80만 달러로 2022년 12월 74만달러에 비해 8% 오른 가격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매사추세츠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렌그룹의 집계 따르면 주전체 거래량은 2022년 12월에 비해 18.4% 감소했다.

새로 선출된 GBAR의 회장 제러드 윌크는 “많은 구매자들이 높은 집값 및 이자율로 구매를 포기하고 또한 매도할 집들도 상당 부분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극히 줄어든 상태” 라고 밝혔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 여름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에서 커다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거래도 활발하지 않는 상태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지난 주 30년 고정모기지 금리는 6.66%로 여전히 높으며 2년전에 비해 약 2배 높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절반에 달하는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유한 집을 내놓고 새집을 구입하는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물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보니 구매자들은 꽤 많은 매물에 집중하게 됨으로서 치열한 구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은 적은 매물에도 전년 동월에 비해 상승하고 있다.

윌크 회장은 “물론 지금은 상당수 구매자들이 구매를 포기하고 대기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은 매물에 비하면 훨씬 많아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혹한의 날씨 전기차 사용... 알아둬야 할 점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화씨 0도 이하 혹한의 날씨까지 속되면서 일부 전기차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혹한의 날씨 전기차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왜 혹한의 날씨에 전기차 배터리가 방전되나?

전기차는 보통 두가지 배터리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낮은 전압의 배터리와 높은 전압의 배터리가 그것이다. 0도 이하의 혹한에서 낮은 전압 즉 12 볼트 배터리는 내연기관 차의 배터리처럼 방전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기차는 낮은 전압의 배터리가 점프스타트되기 전까지 고속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없게된다고 전 테슬라 직원 알버트 고어씨는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둘러싼 화학제가 혹한의 날씨에서는 느리게 반응하게 된다. 이는 충전과 방전 두가지 측면에 영향을 준다.

UVC어바인의 기계 및 항공공학부의 잭 브라우어 교수는 “혹한에서는 이 화학물질의 낮은 반응으로

빠르게 충전하거나 방전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이와 관련해 여전히 뉴욕 타임스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혹한의 노르웨이에서는 별문제 안돼

고어씨는 “미국은 전기차 보급이 이제 막 확대되는 상화에 있다.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 문제” 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혹한에서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차도 똑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고 지적했다.

전체 차의 25%가 전기차인 노르웨이의 경우 전기차 운전자들은 이미 이 같은 혹한의 날씨에 잘 적응하고 있다. 노르웨이 전기차협회의 고문인 라스 갓볼트씨는 노르웨이인들은 차를 타기 전에 차를 예열(Pre-Heating)을 시킴으로서 추운 날씨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르웨이인들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90%의 전기차 소유주들은 집에 충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혹한기의 경우 충전기

를 꼽아두고 필요한 경우 프리히팅을 통해 배터리가 얼지 않도록 하는 경우 대부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충전소의 경우 여름보다 겨울에 긴 줄을 늘어서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충전소가 충분히 많아지면서 그런 문제도 거의 사라졌다.

또한 최근 전기차들의 경우 혹한에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갓볼트씨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기차 업체는 혁신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실제로 혹한의 날씨에는 전기차, 디젤, 가스차 모두 효율성이 저하된다. 제임스 볼리 자동차제조 및 무역협회 대변인은 충분한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혹한의 날씨에도 전기차의 문제는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내연기관의 차는 주유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의 효율성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 볼리 대변인의 설명이다.



매사추세츠 어린 자녀 키우기에 가장 좋은 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교육의 도시 매사추세츠주가 일자리 전망, 교육의 질, 건강보험, 주거시설, 그리고 기타 삶의 질을 중심으로 선정한 결과 어린자녀들을 키우기 가장 적합한 주에 선정됐다.

개인 재정 웹사이트 월렛허브가 연방 정부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5가지 범주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전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월렛허브는 매사추세츠가 “아주 좋은 경제적 기회 및 아이에게 안전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곳” 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는 미국내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도시중의 하나이며 강한 근로 인력과 일자리 기회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이 같은 조건은 아이들에게 좋은 삶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싼 주택값과 높은 육아비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높은 소득으로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월렛허브

의 평가다. 특히 최고의 교육 시스템 및 학군, 미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 및 병원, 뛰어난 수질 등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데 큰 플러스요인이었다.

월렛 허브는 가족에게 가장 이상적인 주는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물가가 저렴하며 안전한 삶과 좋은 일자리 그리고 고품질의 교육,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는 곳을 꼽았다.

월렛허브는 5개의 범주를 각각 20점을 배점하고 가장 이상적인 주를 중심으로 점수를 배정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다양한 카테고리 점수를 합산한 결과 66.97로 1위를 차지했다.

가족 여흥시설 : 미국내 9위

의료 및 안전 : 미국내 5위

교육 및 차일드케어 : 미국내 1위

주택 어포터빌리티 : 미국내 3위

사회 경제적 요인 : 미국내 21위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하버드대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식

"비싼 학비 · 시간 투자했는데"...일자리 못 찾는 MBA 졸업생

하버드 MBA 졸업 후 3개월 내 취업 못 한 비율 8%→20%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고용시장의 호황 속에서도 경영전문대학원(MBA) 졸업생들의 구직은 더욱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국 MBA 졸업생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MBA를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2년간 최대 20만 달러(약 2억6천만 원)의 학비와 함께 별도의 생활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학위 취득 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상위권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들도 구직이 힘들어졌다.

하버드대의 경우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

업생의 비율은 2021년에 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로 급증했다.

스탠퍼드대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업생의 비율이 18%로 늘었다. 지난 2021년에는 이 비율이 9%에 불과했다.

또한 매사추세츠공대(MIT)도 이 비율이 2021년 5%에서 지난해 13%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MBA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 최근 채용에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MBA 졸업생들은 컨설팅이나 첨단기술, 금융 분야에서 직장을 얻기를 원하지만, 최근 1년간 해당 분야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도 MBA 졸업생들에게 불리

한 대목으로 꼽힌다.

최근 수년간 기업들은 MBA 학위를 지닌 구직자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구직자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일대 MBA 진로 담당인 애비게일 카이스는 "기업들이 MBA 졸업생을 채용하는 것은 이들이 경험이 없는 분야에서도 쉽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채용 시에 더 보수적으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BA 졸업생들이 농업과 제조업 등 기존에 MBA 졸업생들의 관심이 적었던 분야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텍사스주립대 MBA 진로 담당 브리트니 타이리는 "첨단기술 분야의 채용이 줄었지만, 소비재와 유통업 등에 취업하는 졸업생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치 시식 행사를 진행 중인 엘렌 박 의원(우측)

美뉴저지주, 매년 11월 22일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

필 머피 주지사, 주의회 통과한 김치의 날 결의에 서명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저지주(州)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한다.

18일(현지시간)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 의원에 따르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김치의 날 결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한다.

현재 뉴저지 외에도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이 주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박 의원이 주도한 김치의 날 결의문에는 한국 이민 사회를 통해 미국에 소개된 이후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널리 사랑받게 된 건강 식품 김치의 역사를 기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치는 2천 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한 전통 음식이고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소개도 포함했다.

이 결의문은 한국계인 박 의원의 주도로 뉴저지주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쳤다.

뉴저지 의회는 지난 2021년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 기념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등 한인 사회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머피 주지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노력해 온 한인 관련 법안들이 결실을 봤다"며 "앞으로 한인들의 실질적인 위상 제고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스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하루 3분 살빠지는 스트레칭



2024년 새해 잘 시작하셨나요? 매년 이맘때는 대부분 새해 계획과 다짐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다양한 목표를 세우곤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제 유튜브를 통해 하루 3분 만이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하자는 의미에서 삼분 요가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시간 없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직 안해보신 분들은 첫번째 복근운동 챌린지부터 따라해보시고, 오늘 스트레칭 영상은 유튜브 채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삼분요가 챌린지 (day2) 영상을 참고하세요.

1. Thread The Needle : 척추 건강, 어깨 통증 완화, 허벅지 스트레칭과 토닝

1단계 네발 기기 자세에서 한다리를 바깥쪽으로 보내줍니다.

2단계 벌린 다리의 반대편 손을 반대편 어깨 밑으로 통과해 트위스트해주세요.

3단계 머리 옆면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바닥을 밀며 시원하게 척추를 비틀어 줍니다.

4단계 바닥에 짚었던 손을 천정쪽으로 뻗으면 어깨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될 거예요. (선택)

TIP! 목이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두 엉덩이가 좌우가 수평이 되게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2. Seated Side Stretch : 허벅지와 옆구리 스트레칭과 토닝

1단계 앞의 동작이 끝나면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사진과 같이 한다리를 뻗고 앉아줍니다.

2단계 구부린 다리의 발은 엉덩이 바깥쪽에 두고 뻗은 다리쪽으로 팔을 길게 뻗어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3단계 처음부터 잘 안 내려간다고 무리해서 무조건 많이 내려가려 하기 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옆구리와 허벅지 안쪽의 자극에 집중하며 깊게 호흡해보세요.

4단계 3-5호흡을 진행한 후 다음 자세를 준비합니다.

TIP! 가슴이 바닥이 아닌 정면이나 하늘을 향해 열릴 수 있게 가슴을 활짝 펴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3. Seated Chest Opener : 자세교정, 허리과 골반통증 완화, 다리부종 완화

1단계 앞의 두 동작이 끝나는 대로 벌렸던 다리를 접어 현자세 (지그재그 다리모양)를 만들어줍니다.

2단계 두 손을 등뒤 바닥 짚고 엉덩이를 올려줍니다.

3단계 그대로 정자세에서 호흡해도 좋고 엉덩이를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천천히 진행해도 좋습니다.

4단계 이제껏 배운 동작을 같은 방법으로 방향바꿔 한번 더 진행합니다.

TIP! 운동하다가 목이 아프면 잠시 머리를 내려놓고 쉬었다가 이어가셔도 좋아요.



*오늘 자세는 자기전에 하면 전신이 이완되고 릴렉스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도 보실 수 있어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칭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Parish in Boston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에 부임하시는
배움진 크리스토퍼 신부님의 취임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1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St. Daveluy Church, 45 Ash St., Newton,
MA 02466

*미사 후 천교실에서 축하 잔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성당이 보스톤 대교구의 정식 본당으로 승
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종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HAPPY NEW YEAR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청룡(靑龍)의 해)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한국계 첫 상원의원 도전' 앤디 김 "역사적인 사건 될 것"

"정치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서 목소리 내면 한인사회 변화 느낄 것"

(포트리미 뉴저지주) 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앤디 김(41)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 "11월 선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의원은 1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포트 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가 당선되면 한국계로서 처음으로 상원에 진출하는 것이고, 미국 동부지역 전체를 통틀어 첫 아시아계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상원에 진출하는 것은 미국의 한인 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껏 연방 상원 회의 석상에 한국계 정치인이 참가한 적이 없었다"며 "미국 정치구조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회의체에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면 한인 사회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하원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상원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회 지도자들이 한인 사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논의한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많다"며 "나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상원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가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한국계는 이제 다른 어느 이민 사회처럼 당당하게 미국 사회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이 상원에 진출할 경우 단순히 한인 사회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최초의 사건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뉴저지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한국계 미국인이 내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4일에 열릴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자신이 상원의원 후보로 확정되도록 한인 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0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의 한인 유권자들이 예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앤디 김 의원

다만 그는 자신이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한인 사회에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거론한 뒤 "평범한 시민, 미국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젊은 상원의원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인 사회뿐 아니라 모든 미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쟁자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테미 머피(58) 여사보다 지지율이 23%포인트 높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에 대해선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낡은 정치 대신 새 시대의 젊은 리더십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난 공화당이 유리한 선거구에서 세 번 연속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상원 의원 선거는 더욱 힘들겠지만, 현재 내가 가장 유리하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뉴햄프셔 경선] 트럼프는 헤일리에 사퇴 압박...바이든은 경선 무시 전략

'재대결 유력' 바이든 · 트럼프, 뉴햄프셔 경선에서 과반 득표 시험대 유권자들, 민주 첫 경선지역 변경에 "바이든 민주적이지 않아 실망"

(포츠머스[美뉴햄프셔주]-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23일)를 닷새 앞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확실시되기는 하지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에 따라 대선론과 재선 전략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압도적 대세론을 확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뉴햄프셔주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공화당 경선 무용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경선 계임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 등의 대체적 분석이다.

반대로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서 최근 뉴햄프셔주에서 급상승세를 탄 니키 헤일리 전 대사의 추격을 허용하거나, 1위 자리를 내줄 경우 3월 중순까지 후보직을 조기에 확정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1위를 차지해도 헤일리 전 대사와 격차가 크지 않다면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간에 사실상 1대 1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면 두 사람간 대결구도를 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판세는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반(反)트럼프 후보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사퇴한

뒤 나온 3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2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앞서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위가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세인트앤셀름 칼리지의 16일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2%, 헤일리 전 대사는 38%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는 모두 8~9일 조사 때보다 7%포인트씩 오르면서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스턴글로브 등의 15~16일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4%로 헤일리 전 대사는(33.8%)를 1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의 12~15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가 40%로 동률을 기록했다.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에 이어 전날에도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층을 문제 삼으면서 헤일리 전 대사를 친(親)바이든 후보로 몰아세웠다.

민주당 당원들이 본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기 쉬운 상대를 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뉴햄프셔주에서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전날 밤 늦게 포츠머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헤일리가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이기면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의 호텔에서 대선 유세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5일 공화당 경선 첫 레이스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한 데 이어, 23일 열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선 후보인 헤일리 전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경선에서 공화당의 힘을 빼고 에너지를 낭비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그는 전날 유세에서 "이제 공화당이 힘을 모아야 하고 통합할 때"라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에너지와 자원, 노력을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부패한 조 바이든을 물리치는 데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햄프셔주가 23일 공화당과 함께 민주당 프라이머리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뉴햄프셔주를 찾지 않는 것은 물론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경선 때 아이오와주에서 4위를 한 데 이어

뉴햄프셔주에서 5위를 하면서 초반 대선론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그는 인구 구성이 백인 위주인 두 주(州)가 미국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 첫 경선 지역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 전국위는 결국 첫 경선 지역을 변경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경선 때 1위를 차지한 곳이다.

그러나 민주당 전국위 결정과 달리 뉴햄프셔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를 개최하도록 한 주(州)법에 따라 민주당 프라이머리를 23일 진행한다. 다만 당의 공식 인준을 받지 않은 비공식 경선이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숫자 계산에 포함될지 여부는 미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등록도 안한 상태다.

문제는 뉴햄프셔주는 경선에서 자

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고 사실상 당내 경쟁자가 없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비공식 투표이기는 하지만 50%의 득표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이름 쓰기' 방식을 통해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분위기는 전국 지지율이 1%대인 민주당 경선 후보인 필립스 하원의원이 두 자릿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지역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좋은사람들
www.gunye.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진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삼성 아이폰 갤럭시 S24, '최대 라이벌' 애플과 차별화 기회

FT "애플 대비 기술적 우위 가질 것으로 보여" 삼성, 지난해 애플에 내준 스마트폰 출하량 1위 '탈환' 시도 노태문 "AI 기술이 주류로 들어오는 새 시대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애플에 뒤진 가운데, 이번에 출시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탑재 스마트폰 갤럭시 S24로 애플과 차별화에 성공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브라이언 마애널리스트는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이 AI 분야에서 큰 우위를 점한 반면 애플은 이 분야에서 현저히 조용했다"면서 "삼성전자로서는 최대 라이벌 애플과 차별화할 기회"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간 지지부진한 스마트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AI에 의지하고 있으며, 갤럭시 S24 출시로 애플 대비 기술적 우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FT의 진단이다.

애플이 통상적으로 신기술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출시는 약 9개월 뒤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도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애플은 AI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향후 몇 달

간 시장에 이러한 결점을 부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가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가운데 AI 활용 가능 휴대전화의 비중이 올해 5%에서 2027년 4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다른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향후 약 2년간 AI폰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보기도 했다.

카날리스의 차우성원 애널리스트는 "생성형 AI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제품전략에 필수적"이라면서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넘어 제품 혁신과 사업모델을 통해 애플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최근 평가했다.

다만 이미 대다수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일정 부분 포함된 만큼, 갤럭시 S24로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바뀔지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가된 AI 기능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I폰이 자동차·가전 등 다른 기기와 연결될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S24

전체적인 정보기술(IT) 기기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DC는 스마트폰 시장 부진 속에 애플의 작년 출하량이 2억3천460만대(20.1%)로 삼성전자(2억2천660만대·19.4%)를 앞섰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애플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삼성전자가 1위를 놓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공개 행사를 열고 'AI폰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갤럭시 S24는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했으며 실시간 통번역 등이 가능하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갤럭시 S24 출시를 통해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에 뒤졌던 출하량에서 다시 역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노사장은 AI는 유행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대와 같이 인간과 기술 간 관계에 지각변동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갤럭시 S24를 통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전망치 5~6%를 넘어서기를 바란다면서 "갤럭시 S24는 AI 기술이 주류로 들어오는 새 시대의 시작을 나타낸다. 전 세계 휴대전화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신제품에 구글 제미니 AI 모델 등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용자 경험"이라면서 "우리는 모바일 산업의 신 영역에서 파트너사와의 협업에 언제나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빅텐트 우선' vs '따로 창당 먼저'...제3지대 통합시간표 신경전

이낙연 불출마에도 '낙·준'이전...양향자, '한국의희망' 당명 고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거대 양당에서 뛰쳐나온 정치인들이 '제3지대 빅텐트'를 세우기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 세력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의식은 분명하지만, 초반부터 각론에서 견해차가 돌출해 실제 '빅텐트'가 서기까지는 장애물이 적지 않아 보인다.

현재 '빅텐트'에 참여하는 그룹은 5개로 정리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든 새로운미래,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3인의 미래대연합,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제3지대 통합정당을 띄우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다섯 개의 세력이 각자의 깃발을 들고나와서는 중도층 표심을 제대로 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미래대연합의 조웅천 의원도 1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통합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통합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있는 듯하지만, 문제는 디테일이다.

특히 제3지대의 상징적인 양대 축인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가 몇가지 사항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주목된

다.

이 전 대표는 16일 공개된 신동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두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모든 것은 국민의 반응을 살펴 움직일 것"이라며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표의 총선 불출마를 놓고도 시각차가 있다.

이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은 1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호남 지역에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며 고향인 호남 지역 출마를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이들의 '출신'이 다르다는 점도 있다.

개혁신당 내에선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다른 세력과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층 중에서도 보수 성향에 가까운 지지층이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자신들만의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창당을 완성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에서 "(개혁신당과) 함께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개혁신당의 한 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화는 하지만, 연대를 위한 실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향자 의원은 당명 이슈까지 들고나왔다.



제3지대 핵심인물들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비명(비이재명계) 탈당 그룹인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혁신당보다는 '한국의희망'이 당의 비전과 가치를 더 잘 보여준다"며 "철학이 녹아 있는 당명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가장 예민한 문제인 공천까지 감안하면 제3지대 통합론

은 논의를 본격화하는 순간 험로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초반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생존을 위해 빅텐트 아래로 모일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제3지대 세력들 사이에서도 아직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수권 정당을 만든다는 각오라면 더 높은 수준의 화학적 결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미래대연합(가칭) 조웅천, 박원석 전 의원.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AN. 19th - JAN. 25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POTA-TOTALLY WORTH IT: GOCHUJANG BUTTER CRISPY POTATOES

Don't miss out on the yummiest and crispiest potatoes your tastebuds will ever meet!
H 마트가 선보이는 최고의 레시피! 걸바속속 감자에 매운 고추장 버터소스를 더해 특별한 맛을 즐겨보세요.



신 선 한 정 육 M E A T at unbeatable low prices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MART CARD MEMBER ONLY**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
FOOD HALL! CONTACT : me@hmart.co**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 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o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 준 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hwa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lath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d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yu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이스나 김
617.271.2037
daisyg@bostonpremierrealty.com



율리 김
978.694.2043
yul@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0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데이비드 조
617.786.7839
davidch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리
978.886.3248
jinalee@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정
401.935.3397
eunjung1@gmail.com



세라 김
617.358.6787
sei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jung@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08.6973
hyeonkim@gmail.com



마리아 김
213.505.0397
mar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리
413.607.1402
miki001@gmail.com



선광호
617.813.3068
song@bostonpremierrealty.com



최현민
617.877.0387
hmin033@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순
781.899.3412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899.1214
hkim@bostonpremierrealty.com



지연영
617.515.1162
j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은경
617.645.6728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헤온 리
404.841.5102
heonr@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652
nancywang102@gmail.com



Shirley Zhao
857.20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6.2715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622.8979
xian2022@gmail.com



Lu Jiang
248.448.0117
lujiang1@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5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9.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빙센트 박
201.446.8996
victor@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68.0409
jake@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6434
sangeun@bostonpremierrealty.com



Nimi Bolanger
413.257.1686
nimit1@gmail.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요리하는 정용진 "경영은 제 숙명이고 요리는 취미입니다"

"이마트와 요리, 접목하지 말아주길...안티 많을수록 찐팬 많아"
"이마트 더 잘 돼야...오프라인 장악, 온라인도 G마켓 통해 진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영은 제 숙명이고 요리는 제 취미인 거예요. 이게(요리) 숙명이 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

요리하는 정용진 "경영은 숙명이고 요리는 취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요리를 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요리를 만들어 손님을 대접한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 가수 이승기, 방승인 노홍철, 축구선수 박지성 등 다양한 인사를 쿡킹 스튜디오에 초대해 대접했다.

18일 연합뉴스가 단독 공개한 영상에서 정 부회장은 직접 반죽하고, 특제 소스를 넣고, 묵직한 중국식 프라이팬을 능숙하게 워질(웍을 다루는 일)을 해 찰리크랩을 만들어내는 솜씨를 선보였다. 정 부회장은 "(요리가) 재밌죠. 왜냐하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트와 요리는 접목하지 말아달라, (요리는) 취미생활이다. 만약에 요리를 안했다면 집에서 퍼져 자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고깃집 가서 접대할 텐데 그것보다는 이 인생이 훨씬 더 나은 거 같다"고 털어놨다.

정 부회장이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건 5년 전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본 아내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가 적적할 때 직접 요리를 해보라고 권해 시작하게 됐다. 요리의 시작은 족발이었는데 하이난 닭, 어릴적 먹던 지단춘권, 탕수육 등 중화요리가 주메뉴로 발전했다고 한다.

정 부회장은 요리하는 모습을 비롯해 일상 사진과 글을 인스타그램에 수시로 직접 올리며 대중과 소통한다. 이에 상당수 네티즌이 '용진이 형'이라 부르며 친밀감을 표현하지만, 그를 '관중'(관심종자의 준말)이라 부르며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정 부회장은 그러나 "안티가 많은 건 너무 해괴한거다. 왜냐하면 안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찐팬'(열렬한 팬)이 많다는 증거니까..."라고 했다.

그는 "사실 '찐팬'이 많아서 나한테 뭐가 이롭지라는 생각하면 별로 (이익이) 없지만, 차라리 안티가 편할 때도 있다"며 "찐팬이 많다, 고맙죠"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오히려 다른 오너 3~4세 경영자들도 세상 밖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작년 12월 23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아내 한지희 씨 플루트 독주회에서 자녀들을 공



요리하는 모습을 선보이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개한 것도 이런 점에서도.

국내 재계 11위의 신세계그룹 최고경영자인 그에게 이마트 등 주요 계열사의 턴어라운드(실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작년 한 해 신세계 주요 기업들은 적지 않은 부진을 겪어왔다. 이마트(트레이더스·전문점 포함)는 작년 1~3분기 매출이 1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1천487억원으로 16.2% 줄었다.

그는 신년사에서 "쇼핑할 때 생긴 '단 한 클릭의 격차'가 고객의 마음을 흔들고 소비 패턴을 바꿨다"며 'ONE LESS CLICK'(원 레스 클릭)을 화두로 던지면서 비효율을 걷어내고 수익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다.

영상 속 정 부회장은 "이마트는 더 잘돼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본업 오프라인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예요. 온라인은 G마켓을 통해서 견제하면서 들어갈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 착용한 LF 빠투 인기..."고객 점점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난해 11월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이 착용해 화제가 된 빠투의 검정 솔더백 '르 빠투 백 블랙'이 연일 동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빠투를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 중인 LF[093050]는 이런 기세에 힘입어 앞으로 고객 접점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겠다는 방침이다.

18일 LF에 따르면 이 사장의 착용 모습이 공개된 직후 르 빠투 백 블랙의 2주간 판매량은 직전 2주에 비해 약 1천% 증가했다.

로고, 유광, 미니 사이즈 등 유사 상품을 포함하면 판매량은 1천600% 늘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한 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반원 모양의 르 빠투 백 블랙을 들고 나와 이목을 끌었다.

LF 관계자는 "작년 12월 르 빠투 백 블랙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동나 예약 주문을 받았다"며 "올해 봄·여름 시즌 상품도 입고와 함께 완판됐다"고 설명했다.

빠투는 1914년 프랑스 디자이너 장 빠투가 패션 하우스를 만들면서 탄생한 브랜드로, 프랑스 명품그룹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가 2018년 인수해 빠투라는 브랜드로 재탄생시켰다.

LF는 빠투를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를 겨냥하기에 적합한 해외 뉴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해 빠투의 가을·겨울 컬렉션은 시즌 시작 이후 월 매출 신장세가 100%에 이르는 등 호조를 보였다.

LF는 작년에만 4곳의 매장을 여는 등 빠투 매장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빠투는 작년 5월 더현대 서울에 국내 첫 번째 단독 매장을 개점한 뒤 한 달 만인 작년 6월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작년 8월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2곳의 신규 매장을 개점한 데 이어 작년 9월 신세계 대전 아트앤사이언스 매장을 열었다.



12월 23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아내 한지희 씨 플루트 독주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공개한 정용진 부회장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10대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파묘' 최민식 "김고은 굿하는 연기 감탄... '투잡' 뭘까 걱정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출연을 제안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캐릭터가 땅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땅의 고귀함을 알아보는 그 가치관이 와닿았어요."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 주연 배우 최민식은 17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시나리오를 읽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 달 개봉하는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작품이다.

최민식은 40년 경력의 베테랑 풍수사 상덕 역을 맡았다. 최민식이 오컬트 장르 영화에 출연하기는 데뷔 35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평소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면서도 "감독님을 믿고 출연을 결정했다. 전작들이 너무 좋지 않냐"며 출연 배경을 밝혔다.

원혼을 달래는 무당 화림을 연기한 김고은 역시 '파묘'로 오컬트 영화에 처음 도전했다. 절친한 사이인 박정민이 캐스팅이 성사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정민은 장 감독의 전작 '사바하' (2019)에 출연한 바 있다.

김고은은 "박정민이 전화를 걸어와 '파묘' 대본을 꼭 한번 봐달라고 했다"면서 "감독님이 (화림 역으로) 너를 너무 원하는데 네가 거절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회상했다.

작품을 수락한 김고은은 실제 무속인을 선생으로 모시고 몸짓, 춤사위, 표정 등 굿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웠다.

선생의 집까지 찾아가 함께 밥을 먹으며 연습에 매진했다는 그는 "경문을 외고 퍼포먼스를 하고 징을 치는 모든 모습이 전문가

다워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강했다"고 털어놨다.

최민식은 김고은이 굿을 하는 장면이 "파묘의 백미 중의 백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고은 배우의 연기를 보니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면서 "김고은은 씨가 걱정되기도 했다. '이러다가 투잡 뛰는 거 아니야? 뭣자리 까는 거 아니냐? 영화 떠나면 안 되는데' 싶었다"며 웃었다.

장의사 영근 역의 유해진도 김고은의 연기를 두고 "저라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유해진 역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유해를 수습하는 법을 익혔다고 한다.

그는 "극 중 영근은 대통령의 장례를 맡았을 정도로 최고의 장의사"라면서 "어떻게 하면 어설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파묘'로 스크린에 데뷔하는 이도현은 군복무 중이라 제작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실력은 물론 외모까지 갖춘 MZ세대 무속인"이라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그는 화림의 제자 봉길 역을 연기했다.

'검은 사제들' (2015), '사바하'로 자기만의 장르를 구축한 장 감독의 신작인 만큼 '파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뜨겁다. 온라인에 게시된 1차 예고편의 총조회수가 1천800만 회를 넘어설 정도다.

장 감독은 그러나 '파묘'는 전작 두 편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전작에선 어떻게든 장면을 예쁘게 찍으려고 했지만 '파묘'는 배우들의 에너지와 기세에서 나오는 이상한 에너지를 담고



싶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 힘들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미묘한 실재감을 표현하기 위해 '파묘'에는 CG(컴퓨터그래픽)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장 감독은 "오컬트가 아니라 현실 판타지라 생각하고 촬영했다"며 "CG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았고, 배우들도 블루스크린이 아닌 실제(현장)를 보여주고 연기하도록 했다. 그게 배우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PGA 골프 레슨

골프 처음 배우는 초보자,
스윙 바꾸시려는 중급자
골프를 직업으로 하려는 프로지망생,
어린이, 주니어, 어른 남녀 모두 환영합니다

장소: Belmont, Acton
연락처: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파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전라북도 우수 농산물 특판전

SPECIALS FROM JEOLLABUK-DO

JAN. 19TH - FEB. 1ST,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맛의 본고장 전라북도의 다양한 상품을 H Mart에서 만나보세요!

Experience one-of-a-kind flavors from Jeollabuk-do Province, exclusively at H Mart.

JB DAMCCOT
Non-sweet
Red Bean
Porridge/
Sweet Red Bean
Porridge



담꽃 무가당 통팔죽/통통 단팔죽

\$3.99 8.8 OZ

JB RARASFARM
Premium
Seaweed
Tofu Snack
Original/
Black Garlic



라라스팜
프리미엄 김두부각 오지리널맛/흑마늘맛

\$2.99 1.05 OZ

JB ROMANTIC
COUPLE
Grilled
Cheese Bar
Original/
Black Sesame



낭만부부 구워먹는 치즈바 오리지널/흑임자

\$5.99 1.16 LB (9 EA/PKG)

JB
Korean
Traditional
Loach Soup



남원미꾸리
추어탕
전통
남원추어탕

\$3.99 10.58 OZ

JB
Korean
Traditional
Eel Soup



남원미꾸리
추어탕
The 기운센
장어탕

\$5.99 14.10 OZ

JB
Red Pepper
Powder



대풍년
고추이야기
고춧가루

\$12.99 1.1 LB

JB RARASFARM
Tofu Shirataki
Noodles



라라스팜
두부 곤약면

\$1.59 6.34 OZ

JB
Dried
Kelp/
Seaweed



바다향
다시마/미역

\$4.99 7.05 OZ

JB FARMJOA
Soybean
Paste Stew



팜조아
친정엄마
꾸러미
뚝딱! 우렁가득 된장찌개

\$6.99 18.34 FL OZ

JB FARMJOA
Gunsan-style
Stir-fried
Squid



팜조아
친정엄마
꾸러미
뚝딱! 군산식 오징어볶음

\$5.99 15.52 OZ

JB
Dried
Acorn Jelly



지산마루
도토리 건조묵

\$4.99 3.52 OZ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Quincy**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Brooklin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72) 경제와 주식시장 예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2023년 주식시장(S&P 500) 상반기는 경기 회복력,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그리고 인공지능(AD)을 둘러싼 열기 속에 약세장에서 반등하며 상승했다. 그러던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나타났고 여기에 금리인상 연준 논평에 동의함에 따라서 8월, 9월, 10월에 3회 연속 하락했다. 투자자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물가상승(Inflation)은 2022년 6월 최고치인 9.1%에서 2023년 11월 3.1%로 크게 낮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논평은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날 것임을 암시하며, 이러한 통화정책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좋은 징조로 나타난다.

2023년 주식시장 수익률이 무려 26.4%로 마감했다. 이것은 주식 전문가를 비롯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이다. 이런 주식시장 상승은 일직선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다 다시 상승했다. 연말 주식시장이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곧 더 많은 상승을 가리키는 비교적 드문 현상이다.

투자의 현인인 찰리 멩거는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역사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 고 언급했다.

작년에 99세로 별세한 고인이 된 위대한 찰리 멩거는 생전에 그는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십여 차례의 미국 불경기를 겪으며 살았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는 1984년부터 6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를 주도했으며, 그 정책이 끝난 후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5배(당시 83%)로 상승했다. 또한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다음 1년 동안 주식시장은 평균 15.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종 금리 인상 1년 후 8/9/1984에는 13.8%, 5/16/1989(12.3%), 2/1/1995(35.7%), 5/16/2000(마이너스 12.4%), 6/29/2006(18.1%), 그리고

12/19/2018에는 27.9%로 상승해서 평균 15.9%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과거의 실적이 결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모든 금리 인상 주기는 독특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중 어느 것도 체계적인 팬데믹과 관련이 없다. 이것은 현재 금리 인상과 그 후의 여파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는 인식하며 과거 주식시장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요동치던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했기에 투자자의 마음 역시 갈광질광한다. 투자하자니 주식시장 하락이 두렵고, 투자하지 않으면 상승하는 기회를 놓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 예측에 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시장 예측을 일관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능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식시장 예측에 대해서는 워런 버핏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오랫동안 주식 예측가의 유일한 가치는 잠쟁이(For-

tuneteller)들을 뛰어넘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도 찰리 멩거와 함께 ‘단기 시장 예측은 투자자에게 독이 되며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아이들처럼 시장에서 행동하는 어른들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이 2022년 3,839.50으로 마감했다. 주요 투자 회사의 23명의 분석가의 2023년 연말 전망치는 적게는 3,650(5% 하락)에서 많게는 4,750(24% 상승)까지 다양했다. 2023년 주식시장 예상 평균 전망치는 4,080으로 단 6% 상승이었지만, 주식시장은 26.4% 상승하며 올해를 마감한 것이다.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30년간 1,700%, 즉 매년 10.1%의 수익을 냈다. 오늘날 주식시장인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안내심이 있다면 이와 비슷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1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설원은 미실의 권력에 의해 7세 풍월주가 되었다. 그가 설화랑이다. 설화랑의 부모는 설성과 금진낭주이다. 설성의 아버지는 ‘이름 모를 화랑’ 이었고, 어머니는 유화였던 설씨녀(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설씨녀의 내용이 화랑세기의 것과 비슷하다. 삼국사기 편찬시 화랑세기를 참조하였다)이다. 금진낭주의 부모는 1세 풍월주 위화랑과 오도이다(오도의 부모는 소지왕의 왕후 선혜와 승려 묘심이다. 이들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사금갑의 주인공들이다). 금진은 일찍이 자매인 옥진과 함께 범흥왕의 후궁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궁당하여 문전에 살다가 그녀를 얻기 위해 5년간이나 발원기도를 한 구리지의 아내가 되어 토함, 5세 풍월주 사다함과 딸 새달을 낳았다. 구리지가 548년 독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자, 설성과 사통하여 설원랑을 낳았다.

설원의 출신은 비교적 한미하였지만 아버지 설성을 닮아 풍채가 아름다웠고 피리(옥적玉笛)를 잘 불었다. 설원랑은 어릴때부터 미생(미실의 동생)과 함께 어울리며 자랐다. 또한 이부동복의 형인 사다함이 미실의 연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미실과 가까이 지내며 그녀의 심복이 되었다. 마침내 572년, 설원랑(설화랑)은 원화 미실을 이어 7세 풍월주가 되었다. 처음에는 낭도들이 그의 출신이 한미하였기에 잘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든든한 후원자 미실이 권력으로 낭도들을 그에게 예속시켰고, 설화랑에게는 많은 재물을 내렸다. 이에 설화랑은 낭도들에게 몸을 굽히고 재물을 풀어 많은 심복들을 만들어 갖고, 곧 모든 낭도들이 그를 따르고 복종하였다. 미실은 자신의 동생 미생을 부제로 임명하여 설화랑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설화랑은 미실의 중매로 부인을 맞이하였다.

한편, 1세 풍월주 위화랑의 장녀 준화俊華는 3세 풍월주 모랑毛郎(모랑의 부모는 범흥왕과 백제 동성왕의 딸 보고공주이다)과 혼인하였다. 그들은 딸 준모俊毛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모랑이 낭도들을 이끌고 국토순례 도중 병을 얻어 555년 비사벌比斯伐(467)에서 객사하였다. 그때 준화는 20세의 나이로 청상과부가 되었다. 그 후 준화는 18년간 홀로 살다가 미실의 권유로 573년 경 7세 풍월주 설화랑과 결혼하였다. 설화랑과 준화낭주는 아들 설웅과 설인피, 딸 정금을 낳았다. 차남 인피의 아들이 설담날이고, 담날의 아들이 원효이다. 원효가 태종무열왕과 보희(김유신의 누이로 왕후가 될 꿈을 동생 문희에게 팔았고 후일 김춘추의 후궁이 되었다) 사이에서 태어난 요석공주의 남편이 되어 설총을 낳았다. 요석공주는 첫 남편 김흠운이 655년 조전성 전투에서 전사하여 일찍이 과부가 되어 두 딸을 데리고 살던 중 원효를 만나게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설총이

다. 즉 설총의 아버지는 원효대사이고, 원효의 아버지는 설담날이며, 담날의 아버지는 설인피이다. 인피의 아버지는 설화랑이며, 설화랑의 아버지는 설성이다. 설성의 아버지는 ‘이름 모를 화랑’ 이었으니 성姓을 알 수가 없다. 다만 하룻밤 나는 사랑으로 얻은 아들을 아버지의 성을 알 수 없어서 어머니 설씨녀의 성을 따랐다고 화랑세기에 전한다. 경주 설씨는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성씨 중의 하나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진한辰韓의 옛땅에 6촌村이 있었다. 첫째는 알천闕川 양산촌楊山村으로 촌장은 알평謁平인데 처음에 표암봉으로 내려와 급량부의 이씨李氏 조상이 되었다.

둘째는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으로 촌장은 소벌도리蘇伐都利이다. 처음에 형산冠山으로 내려와 사랑부沙梁部の 정씨鄭氏 조상이 되었다.

셋째는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으로 촌장은 구례마俱禮馬이다. 처음에 이산弼山으로 내려와 모랑부牟梁部 손씨孫氏의 조상이 되었다.

넷째는 취산 진지촌珍支村으로 촌장은 지백호智伯虎이다. 처음에 화산火山으로 내려와 본 고부本彼部 최씨崔氏의 조상이 되었다.

다섯째는 금산金山 가리촌加里村으로 촌장은 지타只他이다. 처음에 명활산明活山으로 내려와 한기부 배씨裴氏의 조상이 되었다.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으로 촌장은 호진虎珍이다. 처음에 금산山金剛山으로 내려와 습비부習比部 설씨薛氏의 조상이 되었다.>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 부터 있었던 설씨였는데 역사속에서는 물론 현재도 희성으로 총(경주, 순창) 인구는 약 4만명이 조금 넘는다(2015년 - 42,646명). 647년에 일어난 ‘비담의 난’ 을 상기해 본다. 선덕여왕 마지막 해에 비담이 염증과 함께 ‘여왕은 잘 다스리지 못한다 女主不能善理’ 라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할때 명활성에 주둔하였기에, 아마도 이때 고야촌 백성들이 반란에 가담되어 거의 멸족하지 않았을까?(경주설씨 대종회 웹사이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67) 비사벌比斯伐이 현재의 어디인가? 현재도 역사학계에서는 해석이 다르다. 전라북도 전주와 경상남도 창녕 두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삼국사기(신라본기 진흥왕16년)에 보면 “16년 봄 정월에 비사벌比斯伐에 완산주完山州를 설치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완산은 현재 전주이다. 그런데 당시 진흥왕16년은 555년으로 완산은 백제의 영토였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창녕을 비자화比自火, 561년에 건립한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에는 비자벌比子伐, 2006 ~ 2009년에 걸친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석산山城山城 유적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155개의 목간 중 하나에 비사벌比思伐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화랑세기의 3세 풍월주 모랑공조의 기록으로 보면 창녕일 개연성이 크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AN. 18th - JAN. 25th,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댕기머리

DAENG GI MEO RI

Medicinal Herb
Hair Color

새/치/머/리/용
한방 칼라 크림

\$9.99 ← Reg. \$15.99
EA



Black/Dark Brown/Medium Brown/
Natural Brown/Light Brown



Tea With Honey
해오름 액상차

UME PLUM/HALLABONG/
JUJUBE/YUZA/GINGER - 2.2 LB

2\$8.99
FOR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Quincy**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Brooklin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시민덕희' 염혜란 "용기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 주는 영화 되길"

(서울=연합뉴스)이영재 기자 = 24일 개봉하는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포싱을 당한 중년 여성 덕희(라미란 분)가 보이스포싱 범죄 조직의 보스를 잡으려고 중국 칭다오로 건너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덕희는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다.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덕희에게 없어선 안 될 사람이 세탁 공장 동료 봉림(염혜란)이다.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봉림은 덕희를 따라 칭다오로 간다.

17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염혜란은 봉림이 위험을 무릅쓰고 덕희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과정을 개연성 있게 그려내려고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봉림은 매우 현실적인 캐릭터거든요. 덕희는 자기 일이라 너무 간절해서 중국으로 가는 거지만, 봉림이 그를 따라가는 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려낼지 감독님과 많이 고민했죠."

봉림이 중국행을 택한 건 덕희

와의 우정 때문이다. 이 영화는 봉림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고생하던 시절 덕희의 도움을 받았음을 암시한다.

세탁 공장 동료 숙자(장윤주)도 두 사람과 함께하고, 칭다오에선 봉림의 동생 애림(안은진)이 합류한다. 그렇게 이 영화는 네 여성의 끈끈한 우정 이야기가 된다.

"여자들이 하나로 뭉치면 뭐든 잘하잖아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요. (대본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참 재밌겠다 싶었죠."

'시민덕희'는 약자들의 용기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다. 염혜란은 "살다 보면 누구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나"라며 "누군가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는 영화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덕희'는 보이스포싱을 당한 경기도 화성의 중년 여성이 2016년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경찰에 제보해 조직 총책을 잡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이 여성은 최근 '시민덕희' 시사회에도 참석했다. 염혜란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게 영화가 가진 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덕희'에서 염혜란은 주인공 덕희 역의 라미란과 함께 이야기를 끌어가는 '투톱'이다. 중국으로 건너간 봉림이 덕희의 통역사 노릇을 하느라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둘의 '티키타카'가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온다.

1976년생인 염혜란은 라미란보다 한 살 적다. 그는 라미란에 대해 "(한국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를 확장한 대표 주자"라며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도 훌륭해 내가 늘 많이 배운다"고 털어놨다.

'시민덕희'에서 염혜란은 중국어 대사가 많다. 봉림이 조선족 출신이라는 설정에 따라 연변 사투리를 구사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촬영 현장엔 중국어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염혜란이 자연스럽게 중국 말을 하도록 도와줬다.

"차 마실래요"라고 묻는 짧은



대사를 중국어로 할 땐 성조가 잘 안 맞아 촬영을 앞두고 100번 정도 연습하고, 동시 녹음으로 촬영할 때 100번, 촬영을 마치고 후시 녹음으로 100번, 도합 300번은 했다고 한다.

"중국어 기본 발음은 대학 시절 교양과목 수업 때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도 대사를 외우는 게 잘 안돼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중국어를 기초부터 공부하면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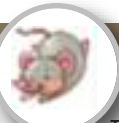
염혜란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마스크걸'에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더 글로리'에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마스크걸'에선 광기 어린 여성을 연기했다.

"다양한 배역에 대한 욕망이 항상 있었죠. 20대부터 엄마 역할을 주로 했는데, 요즘은 (관객들이) '이런 역할도?'라고 반응할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좋아요."

1월 21일 - 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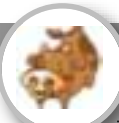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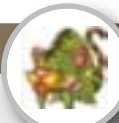
쥐띠 | 기지개를 켜고

●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 금전: 적은 돈이 들어오나 큰돈이 지출되니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 생기기 쉽습니다. ● 애정: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일에는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묵묵히 응대 주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21, 26일 길일. 22, 23일 주의.



소띠 | 사랑의 고백을 받고

● 운수: 어느 쪽으로 보든지 다 밝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사교적으로 좋을 때입니다. ● 금전: 계획했던 일이 성사되어 목돈이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마음 졸이던 일들도 해결되어 금전 문제로 풀리게 됩니다. ● 애정: 혼기가 늦춰졌던 미혼 남녀는 상대방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2, 25일 길일. 23, 27일 주의.



범띠 | 작은 것에 만족하고

● 운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작은 것에 만족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도록 하세요. 욕심을 버리면 더 큰 것을 얻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부부간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23, 27일 길일. 21, 24일 주의.



토끼띠 | 부드러운 말로 일깨워주어야

● 운수: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지적은 하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말로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 금전: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는 척도 말고 조용히 말은 일단 성실히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애정: 그런대로 평탄하게 지나갑니다.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군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4,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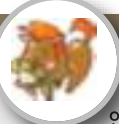
용띠 | 의외의 도움을 받는

● 운수: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성의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 금전: 판매나 상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의외의 도움을 받는 행운의 시기입니다. ● 애정: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뱀띠 |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한

● 운수: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금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됩니다. ● 애정: 마음의 여유가 없군요.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지나치게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말띠 | 한 단계 발전이 가능한

● 운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으나 한 단계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 금전: 주위의 도움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단, 지출은 많아질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 애정: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는 것보다 때로는 강하게 끌고 가는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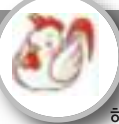
양띠 | 슬기와 재치가 필요한

● 운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 금전: 침체가 오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도전해보세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파악하는 슬기와 재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상대가 우울해하면 기분 전환을 시켜주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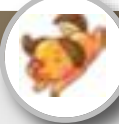
원숭이띠 |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 운수: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 길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길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금전: 아무리 자신이 옳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끝까지 맞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 애정: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말하기 이전에 내 가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2, 25일 길일. 24, 27일 주의.



닭띠 |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해야

● 운수: 자기 자신을 항상 잘 돌아보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무절제한 생활에 빠지기 쉬울 때입니다. ● 금전: 지금으로서 확대는 무리가 됩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애정: 저울질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저울질이 끝나면 흔들림이 없이 한 우물만 파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6일 길일. 23, 25일 주의.



개띠 | 행운을 잡을 수 있는

● 운수: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이 연결되거나 투자할 분야에 대한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금전: 대단한 행운을 잡게 되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단, 사소한 실수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세요. ● 애정: 사람 일은 알다가는 모른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과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돼지띠 |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으니

● 운수: 공연한 일에 헛수고만 하게 되는군요. 쓸데없는 일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중요할 때에 돈 문제가 속을 썩이는군요. 금전적인 문제로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으니 돈에 연연하지 마세요. ● 애정: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좋아하면서도 사랑하기에는 어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6일 길일. 21, 27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8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사랑한다고 말해줘' 정우성 "무채색 표정서 각자 감정 느꼈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원래 수어를 할 때는 표정을 많이 써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얼굴에 감정 표현을 과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죠."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종영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정우성은 자신이 연기한 청각장애인 화가 차진우를 담담하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드라마는 차진우와 무명 배우 정모은(신현빈)의 사랑 이야기다. 정우성은 차진우를 연기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수어를 익혔다. 올해로 데뷔한 지 30년이 지만 청각장애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우성은 "아무래도 수어가 가장 어려웠고 부담이 컸다"며 "처음에는 직관적인 표현들이 재미있어서 쉽게 생각했는데, 손동작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되니 배울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초반에는 대면으로 수어 수업을 받았고, 촬영이 진행되면서는 (통역사가) 촬영해서 보내준 수어 영상을 그대로 외웠다"며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되짚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극중 차진우는 정우성의 말대로 크게 웃는 법이 없고 마음이 아파도 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무뎠던 표정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다.

정우성은 감정은 연기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진우의 표정 연기를 할 때는 감정이 무채색으로 보이도록 했다"며 "차진우를 바라보는 시청자들 각자의 감정대로 그의 표정이 읽히길 바랐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또 차진우가 정모은과 사랑에 빠진 순간이 언제인지 묻자 "마음이 언제 동했는지를 규정지를 필요는 없다"며 "흘러가는 마음을 느끼는 순간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표정이란 게 참 웃겨요.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이 읽히는 게 표정이잖아요. 쓸쓸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람이 쓸쓸하게 보이죠."

사실 '사랑한다고 말해줘'는 정우성이 오래전부터 접착어 둔 작품이다. 1995년 일본에서 방영된 동명 드라마가 원작으로, 13년 전 정우성이 리메이크 판권을 샀다. 정우성은 원작에서 봤던 남자 주인공의 내레이션을 가슴에 꽂혀 판권을 구매했다고 했다. 그는 이 드라마 제작자로 참여했고, 그가 동료 배우 이정재와 설립한 아티스트스튜디오도 제작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드라마 제작이 늦어진 데 대해 "판권을 샀던 당시에는 중간에 남자주인공의 목소리를 트이게 하지는 등 주제에서 어긋난 제안이 들어왔다"며 "아직은 이런 소재의 드라마를 할 환경이 받쳐주

지 못한다고 생각해 제작을 접었다"고 떠올렸다.

세월이 훌쩍 흐른 뒤에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서, 판권 계약 당시 정우성이 연기하기로 한 남자 주인공의 나이를 30대에서 40대로 바꿨다.

정우성은 "나이가 달라진 만큼 인물들이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처하는 법도 달라져야 했다"며 "대본 작업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저의 물리적인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의 알콩달콩한 사랑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고민을 담고 싶었다"며 "내가 사랑하는데 왜 몰라줘라는 느낌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성적인 고민을 하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차를 타고 가다 신호에 걸려 멈춰있을 때 한 중년 커플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손에서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가 느껴졌죠. 그런 것들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뭉클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느낀 차진우의 모습도 그랬죠."

aeran@yna.co.kr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아이유, 3월부터 월드투어...요코하마·LA 등 18개 도시 순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가수 아이유가 월드투어에 나선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오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H.E.R.'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과 일본 요코하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독일 베를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 18개 도시에서 콘서트가 열린다.

2019년 아이유의 아시아투어 '러브 포엠'(Love, Poem) 이후 약 5년 만의 국내의 투어로 서울 공연은 오는 3월 2~3일과 9~10일 열린다. 공연 날짜 이외의 상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이유의 신곡 '러브 윈스'(Love Wins)는 오는 24일 발매된다.

acui721@yna.co.kr

2024 IU H.E.R. World Tour Concert

도시	장소	날짜
SEOUL	ICEYU DOME	03.02(수) / 03.03(목) / 03.04(금)
TOKYO	TOKYO DOME	03.07(토) / 03.08(일)
TAIPEI	TAIPEI ARENA	03.10(수) / 03.11(목)
SINGAPORE	SINGAPORE STADIUM	03.14(토) / 03.15(일)
YOKOHAMA	YOKOHAMA STADIUM	03.16(월) / 03.17(화)
HONG KONG	ASIAWORLD-ARENA	03.18(수) / 03.19(목)
MANILA	SM SANGRENA	03.21(토) / 03.22(일)
KUALA LUMPUR	KLIA ARENA	03.23(화) / 03.24(수)
LONDON	OVO ARENA WEMLEY	03.27(토) / 03.28(일)
BERLIN	MERKURARENA	03.29(수) / 03.30(목)
KRAGUEVAC	MINAT CHALLENGER HALL 1	03.31(금) / 04.01(토)
OSAKA	ASHE ARENA OSAKA	04.03(월) / 04.04(화)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뷔엔 까미노(buen camino)!!

"까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로 가는 길, 산티아고 순례길을 뜻한다. 멀고 긴 여정이다. 세계 각국 각처에서 저들마다의 가슴 속 사연을 담고 와 길을 걸으며 풀어놓고 가는 것이다. 길 위에서 서로의 만남은 그 어떤 장소보다 단조로워 편안해 좋다. 굳이 서로 내가 누구랄 것도 없이 궁금할 것도 없이 길 위를 걷고 있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그 편안함에 젖어 들수록 평안함이 온몸과 마음으로 찾아든다. 걷는 이들의 뒷모습 속에는 홀로 걷는 이, 부부와 연인이 커플이 되어 걷는 이, 아버지와 아들, 딸과 아버지 그리고 엄마와 딸, 아들과 엄마 등.

"뷔엔 까미노(Buen Camino)!!"

산티아고의 순례자들은 길을 걸으며 마주칠 때마다 '뷔엔 까미노' 라고 인사하며 서로의 여정을 축복한다. 참으로 길 위에서 나누는 넉넉한 마음이다. 이렇듯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의 여정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몸소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서로의 눈빛으로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마음인 것이다. 하루에 평

균 24킬로미터씩을 매일 걷는 것이다. 발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고 발톱이 푸르게 멎고 무릎이 아파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에 그 누구하나 불평이 없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배운 까닭이다.

2년 전 같은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언니(권사)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에 관해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떠나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내 계획으로 들어갔다. 찬찬한 성격의 언니가 이것저것 준비를 거의 다 했다. 말로 자주 하면 고마움의 빛이 바래질까 싶어 이 지면을 통해 언니에게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한다. 산티아고에서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참으로 귀하고 보석처럼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아는 지인은 묻는다. 아니, 왜 걸으러 간다며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가서 또 걸으러 가느냐고 말이다.

홀췌 2주 이상을 떠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임을 또 깨닫는다. 그래서 더욱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귀한 시간 헛되지 않도록 잘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의 기도를 올렸다. 때로는 말보다 더 값진 언어가 있어 참으로 다행

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 바로 이번 여행 계획을 세우며 그런 마음이 들었다. 여느 여행이 아닌 마음의 깊은 소리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듣고 오고 싶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한 모습에서도 그렇거니와 나의 신앙의 참모습을 만나고 오고 싶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획했던 여행이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네 삶이 아니던가. 떠나던 날이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막 도착해 보딩패스를 체크하는 중 여권에 이상이 있다고 나온다. 아뿔싸, 프랑스 당국에서는 모든 여권의 3개월 여유를 요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쿠바에 다녀오며 10년이 다 되어가는 내 여권의 갱신 날짜를 이미 알고 확인했었다. 7월 중순경이라 산티아고에 다녀와서 바꾸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 날 새 여권을 받아 떠나게 되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출발 7시간 30분을 가서야 '프랑스 드골' 공항에 도착. 그리고 스페인의 큰 도시 바욤까지 가기 위해 이리저리 살펴봐도 여러 가지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40여 분 가서 프랑스 빠리의 몽파르테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욤까지 가기 위해 미리 예매해 둔 기차표를 들고 열차에 올라 6시간 가서야 바욤에 도착했다. 바욤에서 내려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에 필요한 것을 안내해주는 곳이 있는 St-Jean-Pied-de-Port에 도착해 이것저것 준비와 안내를 받고 하루 묵고 첫 출발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순례길의 여정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만나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각각의 여러 나라에서 언어와 문화가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또 걸으며 불편함 속에서의 놓임이랄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가 모두가 그러니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가짐들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은 것이라면 지금 '내 등에 짊어진 배낭의 무게만큼 바로 내 욕심'이란 생각을 했다. 또 되뇌여 본다, '뷔엔 까미노!!'라고 축복의 마음으로.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행운을 줍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인사하기. 초등학교 저학년 도덕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이다. 오타니의 말은 이어지고 덧붙여진다. 청소란 남이 떨어뜨린 운운을 줍는 것.

야구선수가 왜 청소와 행운. 수천만 달러의 계약금이 행운이라면 그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청소냐는 말이다. 하긴 행운은 주울 수도 있는 모양이다.

오타니는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정의하고 실천하는 듯 하다. 한창 젊은 그의 인생철학이 깊고

두터운데 사진에서 보는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듯 하다. 그리움이 있기에 행복하단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 내게 있으니 때로는 가슴 아린 그리움이 따스기 때문이라고 보니 행복이다

(홍수희, 행복한 결핍 중에서)

어디선가 봤던 글귀이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삼박자를 갖추란다. 삼박자는 재물도 건강도 가족도 아닌데 자신의 마음이라 했다.

그 삼박자 인즉. 욕심이건 뭐건 반으로 줄여라. 타인을 포함한 주변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라. 그리고 내게 닥치는 현실은 담담히 받아 들여라.

올해 내게 주는 말로 삼으려 한다. 행복이 찾아 올지 그건 모르겠다. 행복이 찾아 오지 않는다면 행운이건 행복이건 주으려 한다. 행운은 바라지 않는데, 행복은 기다린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마태 13:16)



웰빙. 무슨 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잘먹고 잘자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일 거라 짐작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없는 삶이 어디 있단가.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오히려 말이 맞는가 싶다.

행운이 찾아 온다. 행운이 달아

났다. 등등. 익숙한 말인데 행운은 불러들이기도 있다. 행운 모으리라 해야 하는데 한국신문에 낯선 컬럼 제목이기도 하다.

일본 괴물투수 오타니의 말이다. 행운을 모으는 방법이란 다. 쓰레기 줍기, 청소, 책 읽기, 그리고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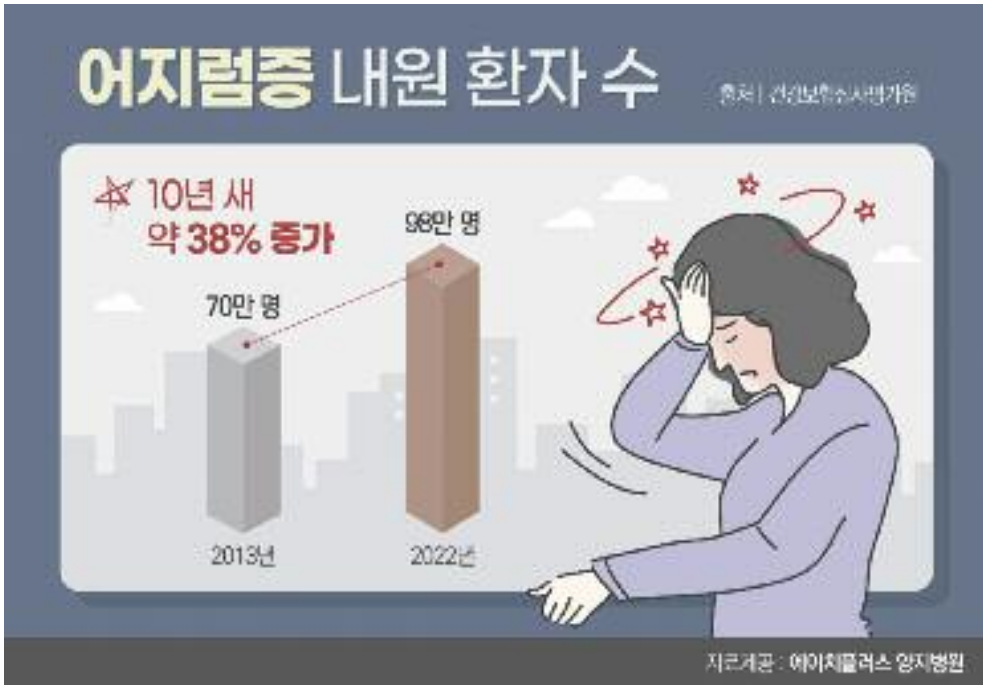
617.949.1766

TALK 010-3469-4040 / ID : hura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amkorea.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추성 어지럼증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뇌질환 전조증상인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경과 정 재면 의무부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10명 가운데 3명은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거나 괜찮아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빈혈이나 저혈압 등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어지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수는 2013년 70만명에서 2022년 98만명으로 10년 새 약 38% 증가했다.

어지럼증은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의 원인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한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퇴행성 뇌질환, 뇌졸중, 뇌종양 등 중증 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원인을 찾아

치료를 받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지럼증은 자신이나 주변의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가장 흔한 신경계 증상 중 하나로 꼽힌다. 어지럼증은 중추신경인 뇌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럼증과 스트레스나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발생하는 심인성 어지럼증, 말초평형신경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말초성 어지럼증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에 발생한 병적인 변화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끼고 이와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환자 4명 중 1명은 중추성 어지럼증에 해당된다. 두통과 만성피로, 평형장애, 몸이 휘청거리고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와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어지러운 느낌이 심하지는 않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특히 뇌졸중으로 인해 급성 중추성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약 10%의 환자들은 일시적인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또 뇌종양이나 퇴행성 뇌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도 지속적인 어지럼증을

겪게 되는데 초기 증상이 경미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한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중증 뇌질환의 위험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필수다.

심인성 어지럼증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지는 경우에 잘 나타나는데 주로 예민하거나 긴장을 잘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자주 느낀다. 순수하게 정신과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주로 회전성 어지러움으로 몸의 위치를 바꿀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전정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며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이 해당된다.

큰 원인 없이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인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빈혈로 인해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라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면 증상이 나아진다.

어지럼증은 각각의 원인들이 조합되어 생기는 만큼 신경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관련과와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질환과 관련이 있

는 만큼 정확한 진단 후 질병에 대한 치료를 시작해 중증 뇌질환이나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추성 어지럼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자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6. 요검사
7. 체지방검사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①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②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③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④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⑤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한국방송은 티보플레이로 보세요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2023.

11.12.

~ 2024.

02.10.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3.11.12.~ 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2024.02.10. 까지

By 2024.02.10.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 04.01.

매일 08:00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신고·등록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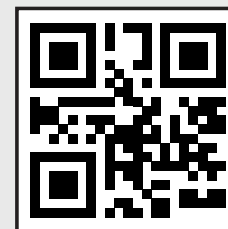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ova.nec.go.kr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